

“그랜드하얏트 서울”에 취업한 졸업생 수기입니다.

제목	야! 너두 할수 있어!!	직무유형	서비스
회사명	그랜드하얏트 서울	성명	이 ○균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 속에 살고 있다. 이로 인해 취업문은 바늘구멍보다 더 좁아지고 있으며, 수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위기에 처해있다. 나는 현재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기존에 외국인 고객들을 많이 유치하던 터라 업계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접 내 살결로 이를 체감하고 있다. 최근 ○○○교수님의 연락을 받고 이 취업스토리북을 작성하게 되었다. 내 경험과 생각이 이 글을 읽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 나의 학창시절

나는 처음에 어떤 학과에도 흥미가 없었다. 단지, 호텔이라는 곳에 대한 환상과 다양한 관광산업을 공부한다는 것이 흥미로워 호텔관광학을 선택하였다. 처음엔 호텔이나 관광산업에 대한 실무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교육받을 줄 알았지만, 다양한 관광산업에 대해 심도 있게 접근하고, 관련 법률, 서비스, 언어, 관광자원, 발표수업 등 교육을 통해 양질의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나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며 눈치 안 보고 동기 및 선후배들과 어울려 놀기 바쁘고, 학과 공부에만 매진했다. 군 복학 후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호주로 교환학생 1년을 다녀왔고, 4학년 남은 1년 동안 전에 미뤄두었던 취업 준비를 시작해 단기간에 정신없이 토익, 관광통역안내사 등 5개의 학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매진해 여러 회사에 지원했고 결국, 서울의 한 호텔에 취직하였다. 지금 생각해도, 단기간 안에 어떻게 많은 일을 이루어냈는지 모르겠다.

### ‘특별한 목표가 없던 학생’

나는 1학년과 2학년 때에는 취업이라는 먼 미래에 대해 전혀 걱정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대학에 들어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문화를 경험하며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다. 즉,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기 바쁘고,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그것

을 대단하게 여겼다. 정작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지, 그리고 왜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모르는데 말이다.' 그래서 난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학과 공부에 전념했다. 그 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이었다. 학과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이 기뻐하신다. 이 공식은 명백하기에 장학금 수령을 목표로 두고, 학과 공부에 전념했다. 그 결과 몇 번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꾸준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손에 쥌 수 있다는 작은 교훈을 얻었다. 그러나, 나는 전반전에 이를 제외한 다른 활동은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난 학과 공부만 한 학생이 되어있었다.

## **변화의 시작 -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렇게 특별한 미래 목표 없이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다녀와 복학했다. 담당 교수님께서 호주로 교환학생 1년을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고, 나는 이 제안을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나는 이전까지 영어를 하는 척만 했지,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던 척쟁이었다. 문득 겁이 나, 반년만 준비하고 3학년 2학기에 다녀오겠다고 호주행을 번복하려고 했으나, 교수님께서 냉정하게 반대하셨고, 그곳에 가서 기본부터 다시 배우고 노력해 언어습득과 문화경험을 하고, 귀국했을 때는 오로지 취업준비에 매진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교수님의 말씀은 머릿속의 잡음을 없애주었고,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게 해주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감사하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후배들에게도 많은 교수님이 이와 비슷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믿는다. 교수님들은 오랜 기간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갖고 계시며, 제자들에게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장점이나 특성에 맞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실 것이다. 제자에게 나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없다. 그러므로, 공부하고 있는 분야의 미래 계획에 있어서 고민이나 신호를 포착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쭙보아야 한다. 그들은 업계의 베테랑이며, 우리는 단순한 질문으로서 그들의 숙련된 경험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이는 가장 쉽게 살아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주저하지 말고 교수님들께 다가가 해답을 얻는데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

## **'Survival mode'**

3학년 1학기 나는 호주로 떠났다. 처음 몇 달 동안 '야생에 속옷만 입고 던져진 신세' 같았다. 내 영어가 부끄럽고, 민망하고, 작아지는 순간이 많았지만, 막상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벌 모드'에 들어가니, 지금까지와 결이 다른 노력과 실천 그리고 도

전이 반복되었다. 많은 실수와 민망함이 따라왔지만, 나는 이 과정에서 많은 성장을 거두었다. 귀국할 때의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호주 사람들의 어투를 비슷하게 구사하고 있었고, 영어 의사소통이 두렵지 않았다.

진심으로, 나는 어떤 계획은 갖고 있지만, 실행은 아직 하지 않은 후배들에게 '서바이벌 모드'에 스스로 자신을 던져두길 권하고 싶다. 오랜 기간이 아니어도 좋으니,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환경에 자신을 던져두는 것이다. 꼭 나처럼 외국으로 나가서 생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취득하고 싶었던 자격증이 있다면, 일단 값을 지불하고 자격시험을 신청해라.'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아까워서라도 분명 도전과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며, 성장과 목표의 성공 거머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내가 경험한 가장 폭발적으로 단시간에 성장 가능한 비책이다. 이 방법으로 나는 4학년 한 해 안에 영어 공인점수와 학과 관련 자격증을 5개 이상 취득하였다. 나도 했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도전해보았으면 좋겠다.

### **'취업준비'라는 높은 산**

영어 공인점수와 자격증은 정해진 답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부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는 다른 문제였다. 왜냐하면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에 관해 공부하여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에 잘 어우러지게 자신을 빚대어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 취업카페, 교내 취업센터를 방문하면 수많은 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해보면 평소 자기소개를 하는 글을 많이 써본 경험이 없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체감할 것이다. 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기소개서 관련 면담'을 신청해 시간 날 때마다 취업센터에 방문했다. 이곳에서 자기소개서 첨삭을 받으며, 글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방문했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 최고의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 노력하였다. 평범한 이야기를 특별한 일로 풀어내기는 정말 쉽지 않았으며, 많은 스킬과 노하우를 '유미'컨설턴트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취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이 꼭 취업센터에 자주 방문해서 첨삭과 면접에 대한 피드백을 가능한 많이 받으라고 권하고 싶다. 이 연습이 쌓이고 쌓여 실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스펙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잘 준비하면 결과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따라서, 취업센터에 자주 방문해 자신을 갈고닦는 연습이 필요하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부끄럽지만 몇 번의 면접 경험을 이야기하겠다. 나는 현재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구인·구직 사이트에 입사하고 싶은 회사의 공고가 나오면, 지원 조건에 충족하고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모조리 지원했다.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부족한 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자 면접은 최고의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모회사의 면접을 봤을 때 오히려 너무 준비했던 탓인지 긴장감에 말 더듬는 실수를 했다. 한번 꼬이기 시작하자 견잡을 수 없었고 결국 떨어졌다. 그러나, 좋은 경험이라 생각했고, 이 회사가 날 떨어트려 준 덕분에 더 좋은 회사에 입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다음 지원할 회사 입사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온 덕분에 나 자신을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었다. 이후 너무 철저한 면접 스피치 준비보다 질문에 대답할 '키워드'에 집중했고, 회사와 연관된 또는 현재 이슈인 키워드를 공부했다. 면접관이 질문했을 때 '키워드'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니 이를 중심으로 내 생각과 입장을 설명하니 답변을 훨씬 자연스럽게 진정성 있게 말할 수 있었다.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그랜드하얏트서울의 면접을 볼 당시 학교에서 '하얏트 호텔'을 조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나 사업 방향 등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다. 다만, 면접 때 1분 자기소개와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대답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였고, 최대한 깔끔하게 대답하려 노력했다. 인터뷰에서 대답은 정말 잘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바로, 이미지였다. 산업 특성상 미소를 보여야 하는데, 오로지 면접 질문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경직되어있었고, 잘 웃지 못했다. 면접 당시 이사님과 지배인님께서 경찰관 같다고 말씀해주었고, 나는 이 의미가 좋은 의미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혀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미소를 빼놓고 정색하는 모습만 보여드렸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나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이후부터 계속 웃었고, 이 모습 덕분에 합격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열심히 면접 준비를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웃는 이미지 하나로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다.

## Keep going

취업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정말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휩싸였고,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준비하지 않는 미래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차근차근 필요한 자격이나 조건을 만들어나갔고, 취업에 골인할 수 있게 되었다. 막상 준비해보니, 어렵다기보다는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었다. 혹시 '뭘 알아야 도전을 할 텐데'라고 생각하는 후배에게는 '다양한 박람회나 공모전'에 참가

해 시야를 넓혀보라고 말하고 싶다.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더욱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직장생활을 하며,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다. 회사는 아무리 능력과 경력이 좋아도 너무 색깔이 강해 어우러지기 어려운 사람을 꺼리는 것 같다고 느꼈다. 특히, 마라토너같이 오래 뛸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 단거리 선수처럼 폭발적으로 짧게 뛸 사람을 선호하지 않는다. 결국, 면접관은 지원 조건에 맞는 성적과 자격도 중요하지만, 면접을 보는 사람의 인성과 개성이 회사와 얼마나 잘 어우러져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러니,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고, 회사의 가치관과 방향을 잘 읽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 코로나로 전 세계와 많은 기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후배들이 이 상황을 타하며 나중을 기약하지 말고, 꾸준히 구인·구직 사이트를 방문해서 입사 지원을 하고, 도전했으면 한다. 안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자.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은 드물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도전해보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은 없다.'라는 말처럼,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내디뎌 어느새 멀리 와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를 응원하고 희망한다.